

'NH 함께하는 전북특자도 성공예금' 출시

NH농협은행, 특자도 성공정착 위해… 김관영 도지사 제1호 가입·범도민 홍보 캠페인 전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특화상품인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29일 출시했다.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열린 가입행사에는 출범 D-50일을 맞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제1호' 가입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가입 행사는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재문 전북도청 지점장 등이 함께 금고은행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범도민 홍보 및 시너지 구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온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특화상품인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을 29일 출시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제1호로 가입했다.

아 마련된 특화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도민이며 누구나 가입(1인 1계좌)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연 3.85%의 예금금리를 제공하며 NH농협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특히, 연간 평균잔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뜻에 동참하고자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전라북도 금고은행으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홍보를 전개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불법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지사장 양동규)는 29일 임실북부권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사회 어르신들의 월동준비를 돋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한전 임실지사,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독거 어르신 60가구에 김치 전달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지사장 양동규)는 29일 임실북부권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월동준비를 돋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연간 평균잔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뜻에 동참하고자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전라북도 금고은행으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홍보를 전개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불법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미를 더했다.

한전 임실지사는 지난 2015년 임실북부권 노인복지관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꾸준히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었다. 이번 임실지사 직원들의 정성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운기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농지은행사업 발전 방향 토론·담당자 소통 강화·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유 등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 농지은행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본사 정인노 농지관리사, 이정문 본부장, 도내 10개지 사장을 비롯 농지은행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은행사업 노력과 공유 및 담당자 소통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2023년 사업 집행실적 점검 및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유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농지은행사업 발전방안 토론 등이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조직문화 활성화 관련 강의도 진행했다.

올해 전북본부의 농지은행 주요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선임 대후보도 사업은 자부심 능력이 부족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 농지은행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 청년농을 위한 적극 홍보로 청년 순농지복구는 영농여건이 불량한 공농 8명(16억) 지원 완료하였고 △체

순농지복구는 영농여건이 불량한 공농 8명(16억) 지원 완료하였고 △체

진(10필지, 1.2억)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전북 청년농을 위해 군산 개정면에 지난 10월 17일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준공(연동형 비닐온실 1동)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은 김제 진봉면 새만금 바이오작물생산단지 매입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후 청년농 6명에게 매도(6개소, 구획당 0.48㏊)계약을 체결 예정이다.

한편, 전북본부는 11월말 현재 공공 임대용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농지 연금사업 등 사업비 1,739억원(101%)을 집행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이 사업들은 청업농 또는 젊은 세대들의 농촌 조기 정착에 기여해주는 등 영농 의지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옥기 기자

수출(90.6→84.4), 영업이익(77.8→75.5), 자금사정(76.4→75.9)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89.4→90.3)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으로 전망됐다.

11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 상승(53.6%)과 내수 부진(48.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력확보 곤란(32.4%), 원자재 가격상승(31.5%), 자금조달 곤란(27.8%)이 뒤를 이었다.

/뉴스스

수출(90.6→84.4), 영업이익(77.8→75.5), 자금사정(76.4→75.9)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89.4→90.3)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으로 전망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병원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약홀에서 중간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행복한 병원 조직 문화 안착에 힘쓸 것"

전북대병원, 중간 관리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병원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약홀에서 중간관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일반직과장, 팀장, 수간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 △생각의 전환 등의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점, 실제 사례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고객인권지원실이 주관한 이번 교육

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차를 맞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유희철 병원장은 "건강한 병원 조직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들의 역할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12월 전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80.1… 전월대비 1.8p ↓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전망한 올해 12월 경기전망지수는 80.1로 전월 대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중소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80.1(전국 평균 78.8)로 전월(81.9) 대비 1.8p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72.5)보다는 7.6p 상승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경기전망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78.8로 전월(83.3) 대비 4.5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2.1로 전월(79.8) 대비 2.3p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80.1→78.2),

수출(90.6→84.4), 영업이익(77.8→75.5), 자금사정(76.4→75.9)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89.4→90.3)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으로 전망됐다.

11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 상승(53.6%)과 내수 부진(48.1%)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력확보 곤란(32.4%), 원자재 가격상승(31.5%), 자금조달 곤란(27.8%)이 뒤를 이었다.

/뉴스스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